

서울에어쇼 성공리에 마쳐 50만 관람, 10개 대형사업체결

서울에어쇼 '96은 세계 각국의 첨단 항공우주산업 관련 업체들이 참여한 국제규모의 행사였으며 일반인들에게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공함과 동시에 전 국민의 축제의 장이 마련된 성공적인 행사로 자리 매김되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성과를 살펴보면, 삼성항공, 대한항공, 현대우주항공 등이 초대형여객기공동개발을 비롯한 10여개의 대형프로젝트 공동개발을 체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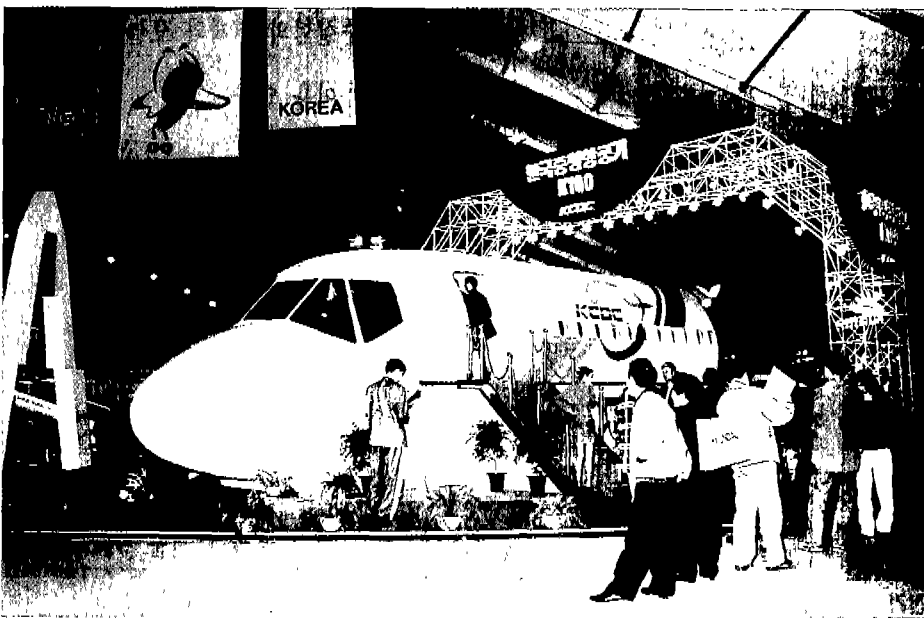
산업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2000년대 한국 경제를 이끌어 나갈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한국의 강력한 의지를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과거 창정비, 면허 생산의 초보적 단계에서 탈피, 중

형항공기와 다목적실용위성등 독자 개발과 함께 초대형여객기개발 등의 국제 공동개발을 통한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는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며 그 위상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일반인들의 많은 관람을 통해 항공우주산업을 새롭게 인식하고 평소 꾸린 창공에의 꿈을 가져왔던 모든 이에게 항공 마인드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범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에 이바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번 서울에어쇼 '96 기간 중 가장 인기를 모았던 행사는 시범 및 곡예비행이었다. 비즈니스 관련자 뿐 아니라 일반 관람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시범 및 곡예비행은 비가 온 24일을 제외하고 모두 예정대로 실시되었으며 세계 유명 전투기 및 여객기 등의 멋진 기동 시범과 미국, 호주, 그리고 한국의 현란한 곡예비행이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과 찬사를 연발하기에 충분하였다.

공동운영본부 측은 에어쇼 행사 기간 7일중 약 55만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았으며 내외신 기자 수는 약 900여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세계 유수 에어쇼의 관람객보다 많은 수로 일반인의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서울에어쇼 '96은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발전의 전기를 마련한 행사였다. 사진은 전시기간중 가장 인기를 모은 중형항공기사업조합관

한국의 A3XX개발 참여 적극 희망 에어버스사, 2가지 옵션제시

유럽의 에어버스 인터스트리(Airbus Industrie)사는 지난 11월 7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방문, 초대형여객기인 A3XX사업에 한국의 업체가 참여해 줄 것을 강력히 희망했다.

에어버스사는 지난 11월 7일 대한항공 회의실에서 대우중공업, 대한항공, 삼성항공, 현대우주항공 등 국내 주요 항공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A3XX사업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실시, 한국이 참여가능한 부문을 2가지로 제안했다.

제안한 2가지중 하나는 Wing Centre Box(주날개와 동체를 고정시켜주는 부문, 무게 약 9톤, 크기 6.5×6.6×1.7m), Elevator(무게 약 1톤, 길이 30.7m), Rudder(무게 약 600kg, 길이 15.8m), Berry Fairing(동체 아랫부분에 붙어 관련 시스템

과 랜딩기어를 보관하는 장소)의 생산이며 또 다른 제안은 Flap Assembly(Inner Flap, Intermediate Flap, Outer Flap, Flap Tracks, Flap Track Fairings 등 Flap전체부분품), Centre Upper Fuselage Shells(중앙동체부분중 윗부분), Doors(승객출입문, 랜딩기어 개폐문 등)의 생산이다.

에어버스사는 현재 초대형여객기인 A3XX 개발사업의 파트너 물색을 위해 유럽 미국등지를 방문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이다.

동사는 4개국의 협력파트너를 물색인데 동아시아 마케팅 전략과 막대한 자본의 분담을 위해 한국이 파트너로 참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국이 동 사업에 개념설계단계에 참여할 경우 에어버스사의 개발팀에 합류, 형상설계에 참여시키고 개발 전후 및 생산단계에서 Work Package를 유리한 조건으로 선택, 개발할 수 있는 반면 그 후속단계

에 참여할 경우 세부설계, 생산, 시험, 품질보증에 책임을 짐과 동시에 부분품개발에 드는 비용부담을 지며 동 여객기 판매시 부분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된다.

한국측에 제안하는 사업 부문은 약 5-10%의 작업 분담으로 Work Package에 따른 부분품 생산이며 상호 이익선에서의 기술전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총 개발비는 약 80 - 100억달러 정도로 에어버스사 측은 예상하고 있다.



에어버스사는 한국업체에 총 개발비의 약 5-10%범위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KAL, 보잉 747X개발 참여

대한항공이 미국 보잉사가 추진중인 초대형여객기 개발프로젝트인 B747-X 의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한다.

대한항공 심이택 부사장은 이번 서울에어쇼' 96 기간중 보잉의 샘화이트 부사장과 합의각서를 체결, B747X의 날개부분 비행조종계 등 모두 1천대분의 항공기에 부착될 항공구조물을 독자적으로 설계 생산해 납품하기로 최근 잠정 합의했다.

이번에 잠정 합의된 금액은 모두 6억달러(약 5천억원) 규모로 대한항공은 내년 1월 설계에 들어가 98년 6월부터 생산에 착수, 99년 6월에 제 1호기분을 공급하게 된다.

동 사는 이번 초대형여객기 개발사업에 공동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 민항기 구성품 제조기술력

을 단순 하청생산에서 독자설계로 한단계발전시키게 됐다며 내년부터 99년까지 연간 30명의 설계 및 기타 제작기술사를 보잉에 파견, 기술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부산김해공장에 전용 제작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대한항공의 심이택부사장은 서울에어쇼' 96기간중 보잉의 샘화이트 부사장과 747X개발에 대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프랑스 닷소사, 라팔 전투기 공군에 제안

프랑스 닷소 에이비에이션(Dassault Aviation)이 설계하고 제작한 라팔(Rafale) 전투기는 우리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계획에 참여하려고 하는 기종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동 제트 전투기는 미국 맥도널더글라스의 F-15E기나 러시아의 Su-37기와 같은 경쟁자들에 비하면 다소 왜소해 보인다.

라팔이 중형 전투기임을 강조하면서 닷소사는 대형 제트 전투기는 한국 공군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닷소사의 간부는 '우리는 한국이 당면한 위협은 우리가 프랑스에서 겪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

한다. 우리는 대형 전투기가 필요가 없으며 라팔은 프랑스에서와 같이 한국에게도 훌륭한 선택이 될 것이다' 라고 서울 에어쇼에서 밝혔다.

크기외에도 라팔을 다른 경쟁자들과 구분짓는 것은 동 전투기에 사용된 기술의 수준이다. 라팔은 현재 사용가능한 세계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제4세대 전투용 항공기이며 제3세대 전투기는 나온지 25-30년이나 되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가격과 다양한 임무수행능력을 라팔을 다른 전투기들과 구분지을 수 있는 특징으로 꼽았다.

우리 공군은 라팔 이외에도 F-15E, 러시아 수호이 설계국의 Su-37,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이 합작 생산한 유로파이터 2000을 고려중이다.

삼성, 노드롭 GE등과 공동 개발 사업추진 초대형기, 산업용엔진 등

삼성항공이 미국 노드롭 그루만(Northrop Grumman)사와 공동으로 보잉 747-500X/600X 초대형여객기의 동체 개발사업에 참여키로 했다. 이 외함께 GE사와는 중형가스터빈 국제공동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삼성항공은 지난 서울에어쇼'96 기간중 노드롭 그루만과 GE사와 각각 이같은 내용의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초대형 여객기 및 가스터빈 국제공동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삼성항공과 노드롭 그루만사는 B747-500X/600X 동체부분을 비롯하여 수평꼬리날개, 수직꼬리날개 등 중요부분의 설계부터 공동참여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있을 실무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삼성항공이 GE사와 추진키로한 산업용 중형 가스터빈엔진 LM2500 국제공동개발사업은 3만3천마력의 25MW급 출력을 갖는 항공기 가스터빈의 파생형이다. 동 사는 국제공동개발을 통해 97년부터 이 엔진의 부품을 생산, 공급키로 했으며 산업용 중형가스터빈 완제품은 98년부터 국내에서 면허생산키로 했다.

기아중, 랜딩기어 40억 수주

기아중공업은 지난 서울에어쇼'96기간중 랜딩기어 수주활동을 전개, 40억원의 계약성과를 올렸다고 발표했다.

동 사는 이번 에어쇼 기간중 영국의 GKN 웨스트랜드 헬리콥터사에 40억원상당의 착륙장치를 공급키로 했으며 착륙장치부문에서 세계 시장점유율 1위인 프랑스의 메시아 다우티(Missier Dowty)사와 에어버스사에 20억원 안팎의 민간 항공기 착륙장치를 수출키로 잠정합의, 국내 최초로 민항기 착륙장치를 수출할 가능

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기아는 이밖에 미국 메나스코사가 수주한 보잉 777 착륙장치 생산에 협력하고 대한항공이 보잉사로 부터 수주한 착륙장치 물량에 대해 자시설비를 이용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에어쇼'96 기간중 전시한 기아중공업의 F-16랜딩기어